

박인비, KPMG챔피언십 V4 도전... '메이저 갈증' 푼다

올해 단 1승도 올리지 못해 체면 구겨... 시즌 첫 승 노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해 기뻐... 열심히 해 보겠다"

박인비(34)가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총상금 900만 달러·우승 상금 135만 달러)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대회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스널 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최된다.

박인비는 올해 단 1승도 올리지 못했다. 세계 랭킹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체면을 구겼다. 이번 시즌 세 차례 톱10에 진입했지만, 세 번이나 컷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세계 랭킹 11위로 미끄러졌다.

2013, 2014, 2015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인비는 이 대회를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박인비는 "2013-2014-2015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나에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회이기도 하고, 이렇게 훌륭한 대회에서 3연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나에겐 큰 자랑거리로 남아 있다.

내 가슴속에 새겨진 가장 중요한 대회, 특별한 대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며 "이번 주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하고 플레이하는 것에 대해 기쁘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코스에 대해 "콩그레스널 골프장은 이번주에 처음 경험했는데, 정말 소문에도 듣던 대로 너무 좋은 골프장이다.

이번 주 여자 선수들의 기량을 테스트하는 데 더 없이 좋은 경기장이 될 것 같



박인비가 4월 미 캘리포니아주 팔로스버디스 에스테이트의 팔로스버디스 CC에서 열린 LPGA 투어 팔로스버디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다"며 "그린이 까다롭고 코스 전장도 짧지 않고 긴 편이기 때문에 톱클러를 많

이 치게 될 것 같다. 그린에서 굴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린 플레이가 중요하

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시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 출연하는 유지태(오른쪽), 박해수(왼쪽), 전종서(중앙). 뉴스시스

유지태·박해수·전종서 '종이의 집' 화보 공개

배우 유지태, 박해수, 전종서가 미묘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동명의 스페인 시리즈를 리메이크한 넷플릭스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은 통일 직전 한반도를 배경으로 천재적 전략가와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강도들이 기상천외한 변수에 맞서며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인질 강도극이다.

이번 화보 속 세 배우는 극중 캐릭터들의 강렬한 면면처럼 카리스마를 뽐냈다. 사상 초유의 강도 사건을 계획한 '교수'역을 맡은 유지태는 "원작에서 2개 시즌에 걸쳐 전개된 내용을 단 12개의 에피소드로 압축했다. 설명을 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정리된 플롯으로 포인트만 탁탁 던진다. 빠른 전개에서 오는 쾌감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조폐국에서 현장 지휘를 맡은 '베를린' 역의 박해수는 "워낙 호평을 받은 원작 덕에 우려나 부담이 없진 않았지만, 대본을 보며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만의 차이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이 강도단의 또다른 주축인 '도교'역의 전종서는 "리메이크된 도교는 더 차분하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에 가깝다. 새로운 전종서의 얼굴을 기대 하셔도 좋을 것"이라 말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시스

이현중, 한국인 2호 NBA 꿈 이룰까... 오늘 드래프트

2004년 하승진 이후 도전
큰 키·정확한 3점 슛 강점

한국 농구의 차세대 기대주 이현중(22·데이비스대)이 한국인 역대 두 번째로 미국프로농구(NBA)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

2022 NBA 드래프트가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바클레이스센터에서 열린다.

대학 3학년을 마치고 드래프트를 신청한 이현중은 2004년 하승진(37) 이후 18년 만에 한국인 NBA 선수에 도전한다. 하승진은 2004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46순위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부름을 받았다.

이현중은 2022cm의 장신 포워드다.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여자농구는 메달리스트 성정아 씨의 아들인 이현중은 삼일상고를 거쳐 미국 데이비스대에 진학해 NBA에의 꿈을 키웠다.

지난 2021-2022시즌 평균 15.8점 6리바



한국 농구의 차세대 기대주 이현중(22·데이비스대·왼쪽)이 한국인 역대 두 번째로 미국프로농구(NBA) 무대에 도전한다. 뉴스시스

운드로 팀 공격을 책임졌다. 3점 슛 성공률은 38.1%.

유망주들이 참가하는 NBA 드래프트 콤비인에는 초청받지 못했지만 인디애나 페이서스·LA 레이커스·살럿 호네츠 등의 위크아웃에 초청받아 기량을 선보였다.

현지에선 이현중의 큰 키와 정확한 3점 슛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단, 운동능력이 뛰어나고 크고 빠른

NBA 선수들과 대결하기에 수비 약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어두운 평가가 공존한다. 드래프트에선 30개 구단이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선수를 선발해 총 60명을 지명한다.

2라운드 후반 지명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력 드래프트에서 부름을 받지 못하더라도 투웨이 방식으로 NBA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



왼쪽부터 정강선 전북체육회장과 조세혁 선수. 뉴스시스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임블던 코트에 선다

ITF 운영, 14세부 유럽 투어링팀 선발... 주니어대회 출전

전북 테니스의 미래이자 한국 테니스 유망주인 조세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유럽 투어 일정에 나선다.

23일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아시아 14세 이하 남자 랭킹 1위이자 한국 U-14세 국가대표인 조세혁이 유럽 투어길에 오르기 위해 오는 30일 출국한다.

조세혁은 국제테니스연맹(ITF)이 운영하는 14세부 유럽 투어링팀에 선발, 장학생으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현재 조세혁은 도 체육회의 월드스타 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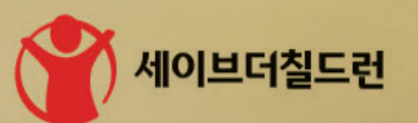
성 사업에 선정, 밀착 지원도 받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독일·벨기에 등 유럽 각지에서 훈련과 대회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조세혁은 이번 투어를 통해 한층 더 경기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승패를 떠나 역사가 깊고 최고 권위가 있는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임블던 테니스(주니어)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서 조세혁은 대륙별로 초청된 16명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임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코트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엄마 아빠, 내 백일잔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나의 백일이예요.
엄마 아빠는 벌써부터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념할지 의논하고 있어요.

나를 낳느라 고생을 많이 한 엄마와 매일 밤잠 설치며 재워주는 아빠
아프지 않고 잘 자라는 기특한 나를 위해 아주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특별한 나의 백일,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실 거죠?

좋은 날, 행복을 더하는 기부 좋아서하는기념일



'좋아서하는기념일'은 백일, 첫돌, 결혼, 일상 속 다짐 등 다양한 기념일을 기부로 기억하는 후원입니다.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후원 감사증서와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좋아서하는기념일 을 검색해보세요!

참여문의 02-6900-4400 홈페이지 www.sc.or.kr/like

